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’ 1R 오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전승희, 배소현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제14회 KG 레이디스 오픈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29일(금) ~ 8월 31일(일) |
| 3 | 장 소 | 써닝포인트 컨트리클럽 [Sun(OUT) / Point(IN)] |
| 4 | 주 최 | KG그룹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826야드-예선, 6,728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배소현, 이예원, 노승희, 박현경, 방신실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, 김민선7  김민주, 정윤지, 고지원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, 서연정, 황정미  김수지, 정슬기, 김지현, 김채린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전승희, 1라운드 중간합계 7언더파 65타 \*단독 선두(14시35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11374>

**Q. 경기 소감은?**

처음부터 잘하고 싶었는데, 샷이 안정적으로 잘 되면서 기회를 많이 얻었다. 아까운 버디 퍼트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다. 정규투어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 기쁘다. 그렇지만 오늘에만 안주하진 않겠다. 우승해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

**Q. 7언더파 65타는 본인 기준 정규투어 개인 베스트 스코어인데, 소감은?**

골프를 시작하고 대회 때 7언더파를 딱 한 번 쳐본 적은 있다. 학생 때 기록이기도 해서 오늘 초반부터 흐름이 너무 좋아 ‘한번 깨보자’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홀까지 열심히 쳤는데 유지하게 됐다. 조금 아쉽다.

**Q. 현재 신인상 포인트에서 1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규투어에서 어려운 점은?**

코치님이 퍼트가 중요하다고 연습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, 초반에는 그 말을 안 듣고 퍼트 연습을 소홀히 해서 많이 헤맸다. 이후 퍼트 연습에 집중하면서 흐름이 좋아졌다**.**

**Q. 남은 라운드에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?**

오늘처럼 운이 따라주고 더 몰입해서 좋은 경기 흐름을 이어나가고 싶다. 후반에 체력이 조금 떨어졌는데 음식과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서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한다

**Q. 이번 대회 각오는?**

목표는 우승이다. 준비했던 것을 다 보여주고 싶고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.

**Q. 특히, 이 대회에서는 첫 우승자가 많이 나왔는데?**

그 전통을 이어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.(웃음)

**◈ 배소현, 1라운드 중간합계 3언더파 69타 \*공동 8위(14시35분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589>

**Q. 경기 소감은?**

오늘 샷 감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경기 흐름은 괜찮았다. 보기 하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풀린 하루였고, 퍼트 감도 나쁘지 않아서 파 세이브를 잘 해낸 것이 만족스럽다. 오늘 더 잘 쉬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내일은 더 많은 버디를 만들겠다.

**Q. 7번 홀 바운드가 아쉽지는 않았는지?**

아쉽긴 했지만 러프가 깊었다. 앞으로 튀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. 내리막을 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면서 너무 빨리 스피드가 죽어 당황했다.

**Q. 이 코스는 몰아치기가 필요하다. 자신 있는지?**

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.

**Q. 발가락 부상이 있었는데 어떤가?**

어제 다친 부위를 계속 소독하고 약도 챙겨 먹으면서 지금은 훨씬 괜찮다.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플레이할 때 큰 지장은 없다.

**Q. 남은 라운드 각오와 목표는?**

오늘 간신히 60대 타수를 기록했다.(웃음) 타이틀 방어하는 것이 ‘결코 쉽지 않구나’를 또 한 번 느꼈지만 출발이 나쁘지 않기에 남은 이틀도 60대 타수로 마무리하고 싶다. 몰아치기도 해보면서 우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.